삼성전자, 업계 최초 LPCAMM 개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0753?sid=105

PC·노트북 등 차세대 모듈 시장 선도  
  
  
  
[사진 삼성전자][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삼성전자가 PC·노트북 D램 시장의 판도를 바꿀 LPDDR D램 기반 7.5Gbps LPCAMM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LPDDR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장치 등에 탑재되는 저소비전력 D램을 말한다. Gbps는 1초당 전송되는 기가비트 단위의 데이터다. LPCAMM은 LPDDR 패키지 기반 모듈 제품으로, 기존 DDR 기반 So-DIMM보다 성능·저전력·디자인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낸 제품이다. So-DIMM는 일반적인 DIMM보다 크기가 작으며 노트북 등 소형 시스템에 많이 사용된다.기존 PC나 노트북에는 LPDDR 패키지 제품을 메인보드에 직접 탑재한 온보드 방식 혹은 DDR 기반 모듈 형태의 So-DIMM이 사용되고 있다. 온보드 방식은 소형화, 저전력 등의 장점이 있지만 메인보드에 직접 탑재돼 교체가 어렵다. So-DIMM은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전송 속도, 공간 효율화 등에서 물리적 개발 한계가 있다.이에 삼성전자는 LPDDR을 모듈에 탑재해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함과 동시에 탈부착을 가능하게 했다. 제조사에는 제조 유연성을, 사용자에게는 교체·업그레이드 등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셈이다. LPCAMM은 So-DIMM보다 탑재 면적을 최대 60% 이상 감소시켰다. 또한 성능은 최대 50%, 전력효율은 최대 70%까지 향상돼 인공지능(AI)·고성능 컴퓨팅(HPC)·서버·데이터센터 등으로 응용처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데이터센터 고객들은 LPDDR 탑재를 고려한 전력 운영 및 총 소유 비용(TCO) 효율화를 검토 중이다. 온보드 방식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및 문제 발생 시 메인보드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LPCAMM을 서버에 적용하면 원하는 성능으로 제품을 교체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한 전력 운영 관점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인텔 플랫폼에서 7.5Gbps LPCAMM 동작 검증을 마쳤으며, 2024년 상용화를 위해 연내 인텔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와 차세대 시스템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LPCAMM 개발… 내년 상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35291?sid=105

LPDDR 기반 모듈… 성능 50%↑ 전력 효율 70%↑탑재 면적은 60%↓… 공간 효율 높여“저전력 특화… 데이터센터 운영비 절감 효과”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 개발한 LPDDR D램 기반 LPCAMM./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PC·노트북 D램 시장의 판도를 바꿀 LPDDR D램 기반 7.5Gbps(초당 기가비트) LPCAMM(Low Power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LPDDR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소비전력 D램이다.LPCAMM은 LPDDR 패키지 기반 모듈 제품으로, 기존 DDR 기반 So-DIMM(노트북용 메모리) 대비 개선된 성능·저전력·디자인 효율성이 특징이다. LPCAMM은 So-DIMM 대비 성능은 최대 50%, 전력효율은 최대 70% 향상돼 인공지능(AI)·고성능 컴퓨팅(HPC)·서버·데이터센터 등으로 응용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LPCAMM은 So-DIMM 대비 탑재 면적을 최대 60% 이상 감소시켜 PC나 노트북의 부품 구성 자유도를 높여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LPDDR을 모듈에 탑재해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함과 동시에 탈부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사에는 제조 유연성을, 사용자에게는 교체·업그레이드 등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기존 PC나 노트북에는 LPDDR 패키지 제품을 메인보드에 직접 탑재한 온보드(On-board) 방식 혹은 DDR 기반 모듈 형태의 So-DIMM이 사용되고 있다. 온보드 방식은 소형화, 저전력 등의 장점이 있지만 메인보드에 직접 탑재되어 교체가 어렵고, So-DIMM은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전송 속도, 공간 효율화 등에서 물리적 개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데이터센터 고객들은 최근 LPDDR 탑재를 고려한 전력 운영 및 총소유 비용(TCO) 효율화를 검토 중으로, 온보드 방식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및 문제 발생 시 메인보드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LPCAMM을 서버에 적용할 경우 원하는 성능으로 제품을 교체하여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력 운영 관점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삼성전자는 인텔 플랫폼에서 7.5Gbps LPCAMM 동작 검증을 마쳤으며, 내년 상용화를 위해 연내 인텔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와 차세대 시스템에서 검증할 예정이다.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부사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성능, 저전력, 제조 융통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LPCAMM은 PC·노트북과 데이터센터 등으로 점차 응용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LPCAMM 솔루션 시장 확대 기회를 적극 타진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메모리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디미트리오스 지아카스 인텔 메모리 & IO 테크놀로지 VP는 “LPCAMM은 에너지 효율성과 교체·수리 용이성이 강점으로, 이 새로운 폼팩터는 오늘날 PC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클라이언트 PC 생태계의 원동력이 되고, 보다 넓은 시장 응용처에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노트북 더 얇고 강력하게"…삼성전자, 게임체인저 내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6690?sid=101

삼성전자, 고성능·저전력 차세대 D램 모듈 첫 개발노트북·PC 등에 탈부착 가능 서버 업그레이드시 비용 절감"AI 시대 첨단 메모리도 주력"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저전력 D램 ‘LPDDR’을 묶은 PC·서버용 차세대 모듈 제품을 개발했다. D램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향상됐고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쉬운 게 장점으로 꼽힌다. D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삼성전자는 26일 “7.5Gbps(초당 기가비트) LPCAMM(LPDDR 부착 모듈)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PCAMM은 모바일용 저전력 D램인 LPDDR 여러 개를 패키징해 제작한 모듈형 제품이다. 저전력·고용량 D램을 원하는 PC·노트북 제조사를 겨냥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현재 노트북 제조사는 LPDDR 여러 개를 메인보드에 직접 붙이는 ‘온보드’ 방식이나 일반 D램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So-DIMM(소딤)’ 방식을 쓴다. 온보드는 D램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 교체가 어렵고 소딤은 전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삼성전자는 LPCAMM을 통해 고성능·저전력을 구현하면서 탈부착도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다. LPCAMM은 소딤 대비 탑재 면적이 최대 60% 이상 작다. 그만큼 노트북을 얇게 만들 수 있다. 성능은 최대 50%, 전력 효율은 최대 70% 더 좋다.삼성전자는 LPCAMM으로 얇은 노트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저전력 D램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LPCAMM이 데이터센터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트북·PC시장 '게임 체인저'…성능 50%·전력 효율 70% 개선저전력·소형 D램을 뜻하는 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LPDDR) 제품군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적용됐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전력 효율성’이 화두가 되면서 PC, 서버 기업까지 저전력·고성능의 소형 D램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LPDDR 여러 개를 묶어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잡은 LPCAMM(LPDDR 부착 모듈)을 개발해 답을 제시했다. ○PC, 노트북 고객사 겨냥26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7.5Gbps(초당 7.5기가비트의 전송속도) LPCAMM은 LPDDR 기반 패키지 제품이다. LPCAMM은 1차적으로 PC·노트북 고객사를 겨냥했다.지금까지 PC엔 온보드(On-board) 방식이나 So-DIMM(Small Outline Dual In-line Memory Module) 방식의 D램이 부착됐다. 온보드 방식은 LPDDR D램을 메인보드에 직접 붙인 형태고, So-DIMM은 DDR D램을 인쇄회로기판(PCB) 양면에 장착해 기기에 넣은 것이다. 온보드 방식은 LPDDR을 활용했기 때문에 소형화, 저전력 등의 장점이 있지만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돼 교체가 어렵다. So-DIMM은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DDR D램을 써 공간 효율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LPCAMM은 LPDDR을 모듈 형태로 만들어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갖췄다. 동시에 기기에 탈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조사엔 디자인 유연성을, 사용자에겐 교체·업그레이드 등의 편의성을 높였다. 예컨대 LPCAMM은 So-DIMM 대비 면적을 최대 60% 이상 감소시켜 10㎜ 미만 두께의 노트북 제작이 가능하다. ○서버로 적용처 확장최근엔 데이터센터 고객사도 서버에 LPCAMM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력 효율성이 좋고 업그레이드 때 메인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PCAMM은 중장기 유지·업그레이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등 응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LPCAMM을 앞세워 33조원 규모(2022년 기준)의 글로벌 저전력 D램(LPDDR) 시장에서 ‘초격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 점유율은 57.6%로,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18.8%)와의 격차가 40%포인트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PCAMM 등장은 PC, 노트북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DDR7, LLW D램 통해 시장 주도삼성전자의 중장기 목표는 메모리 반도체를 통한 AI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AI 확산으로 전 세계 기기의 데이터 처리량은 2010년 2제타바이트(ZB)에서 올해 100ZB, 2025년 181ZB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는 의미다.삼성전자는 DDR5 32Gb, 그래픽더블데이터레이트(GDDR)7 등 AI 시대에 대비한 고용량 D램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에서 실행되는 AI인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LLW D램도 2024년 말 목표로 개발 중이다. 중앙처리장치(CPU) 주변에 배치하지 않고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차세대 D램도 주요 고객사와 함께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세상에 없는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할 것”이라며 “AI 시대 대변혁기를 맞는 메모리업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조정 막바지…4분기 수급 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1908?sid=10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KB증권은 26일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반도체 출하 증가에 따른 재고 감소가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만5000원을 유지했다.3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재고 축소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감산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가 판매를 중단하고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스마트폰, PC 업체들이 수요 감소에도 주문량을 늘리고 있고, 북미 4대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 조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건전화 추세와 메모리 감산 폭 확대에 따른 공급 축소 등을 고려해 최근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특히 KB증권은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수급 개선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삼성전자의 강도 높은 감산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능력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9월 현재 예약 주문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내년부터 상승 사이클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고창군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3000억원 규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2650?sid=102

전북도-고창군-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조성 투자협약식삼성의 첫 전북 투자이자 대규모 사업장 구축 기반 사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주) 스마트허브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5. pmkeul@nwsis.com[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삼성전자㈜가 전북 고창군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특히 이번 투자는 삼성이 전북에 대한 첫 투자이자 대규모 사업장 구축을 기반 최초투자다.전북도와 고창군은 삼성전자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투자로 삼성이 대규모 사업장 구축 기반, 전북에 대한 첫 투자이며, 전북도는 민선8기 들어 새만금 외 지역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유치한 사례가 됐다.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했다.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여㎡(5만4000여평)을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물류센터는 연내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에 착공, 2026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총 3000억원을 투자하고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최근 집중 기업유치 중인 새만금 외 지역에서 전해지는 대규모 투자로 시·군의 지리적 특성,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도는 앞으로도 시·군별 강점과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14개 시·군에 골고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삼성전자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삼성전자가 고창군에 첫 대규모 투자를 해 줌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E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혁신기술로 패러다임 전환...'주특기' 꺼내든 삼성전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3214?sid=101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LPDDR D램 기반 7.5Gbps LPCAMM삼성전자가 새로운 메모리 폼펙터인 LPCAMM을 꺼내든 것은 혁신 기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활로를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통해 개척하겠다는 것.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들어 낸 '주특기'를 다시 한번 사용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컴퓨팅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니즈도 높아진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1위로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뛰어넘는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내놓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AI 특화 메모리 기술을 확보하고, GDDR7, DDR5 32Gb(기가 비트) 등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이번에 공개한 LPCAMM도 이같은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컴퓨팅 파워가 높아질수록 사용되는 전력량도 늘어나는데, LPCAMM는 전력 소모를 줄이고자 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작고 얇은' 폼팩터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노트북 시장에서 초슬림 노트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4%에서 2027년 88%로, 연평균 약 14%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LPCAMM은 작고 얇은 폼팩터에 So-DIMM의 강력한 성능을 그대로 담아, 초슬림화가 대세인 노트북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세상에 없는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 전략을 통해 1등 자리를 지켜왔다.   
  
  
  
(서울=뉴스1) =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용량의 '1Tb(테라비트) 8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8세대 V낸드를 앞세워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의 고용량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표적인 사례가 낸드플래시 기술이다. 과거 반도체 업계는 낸드플래시 공법으로 '트렌치'(반도체 소자를 아래로 파내려가는 방식)와 '스택'(반도체 셀을 위로 쌓아올리는 방식)의 선택을 놓고 고민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스택'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결국 시장의 주력 기술이 됐다. 당시 삼성보다 앞서있던 기업 중 트렌치 방식을 선택한 곳들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최초로 V낸드의 양산에 성공하며 기술적 대변혁을 일으켰다.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21년간 플래시 메모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D램 분야에서 물리적 한계로 알려졌던 10나노급 진입도 삼성이 가장 빨랐다. 2020년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D램 모듈을 고객사에 공급한 것도 삼성전자였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 점유율(옴디아 기준)은 57.6%에 달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차세대 메모리 모듈로 LPDDR(Low Power Double Data Rate, 저소비전력) D램 기반 7.5Gbps(초당 전송되는 기가비트 단위의 데이터) LPCAMM(Low Power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시제품 양산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클라이언트 PC 및 서버용 저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고창에 첨단물류센터 건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0788?sid=102

전북 지역에 첫 사업장 구축… 전북도·고창군, 고용창출 기대  
  
  
  
연합뉴스TV 제공삼성전자가 전북 고창군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3000억원을 투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삼성이 전북 지역에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하는 첫 사례다.전북도와 고창군은 25일 전북도청에서 삼성전자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하여 심덕섭 고창군수,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삼성전자는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18만여㎡를 매입해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호남권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연내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전북도 등은 이를 계기로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韓 영업익 감소 폭 美 16배…애플 10% 줄 때 삼성 95% 증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9016?sid=101

한경협, 시총 100대기업 비교…IT·에너지 실적감소올해 상반기 한국 100대기업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 폭이 미국 100대기업보다 약 16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5.4% 감소했지만 애플은 10% 줄었다. 삼성전자 등 정보통신(IT) 기업과 에너지 업체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시가총액 100대 비금융 기업, 한국거래소 상장 시총 100대 비금융 기업 상반기 경영실적 비교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조사 결과 미국 100대기업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6643억달러(약 887조8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6385억달러(약 853조3000억원)로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100대기업 영업이익은 678억달러(약 90조6000억원)에서 248억달러(약 33조1000억원)로 63.4% 급감했다. 한국 감소 폭은 미국의 15.75배였다.매출, 당기순이익에서도 밀렸다. 미국 100대기업 매출은 3조7828억달러(약 5055조7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3조8720억달러(약 5174조9000억원)로 2.4% 증가했다. 한국 100대기업 매출은 7444억달러(약 994조9000억원)에서 7463억달러(약 997조4000억원)로 0.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미국 100대기업은 3.2% 증가했지만 한국 100대기업은 68% 감소했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애플스토어 강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한경협은 반도체 등 IT 기업, 에너지 업체 실적이 감소했다고 진했다. 올 상반기 미국 IT 기업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0.3%, 4.8%, 4.4% 감소했다. 한국은 각각 21.5%, 113.0%, 109.4% 급감했다. 에너지 분야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감소 폭도 한국이 더 컸다. 미국은 각각 17.8%, 22.3%, 24.2% 감소했지만 한국은 0.4% 증가, 82% 감소, 100.6% 감소했다.양국 시총 1위 기업 애플과 삼성전자 희비도 엇갈렸다. 애플은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2%, 10.0%, 9.2% 줄었다. 삼성전자는 21.5%, 95.4%, 86.9% 감소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 폭은 애플의 약 10배에 달했다. 메타플랫폼(메타) 상반기 영업이익이 9.8% 느는 동안 카카오 영업이익은 44.9% 줄었다. 블리자드 영업이익이 64.7% 는 반면 크래프톤은 15.2% 감소했다.

삼성전자, 2분기 유럽·중동·아프리카 스마트폰 1위 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52674?sid=101

삼성전자가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왕좌를 지켰습니다.오늘(2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33%의 점유율을 기록해 애플(23%)과 샤오미(2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삼성전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31%)보다 2%p 늘어났지만, 애플은 2%p 감소했습니다.2분기 유럽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12% 감소한 여파로 삼성전자도 1년 전보다는 출하량이 8% 줄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오포는 유럽시장에서 각각 21%, 51% 줄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2분기 중동·아프리카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24%로 테크노(16%)와 샤오미(9%)를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저가형 갤럭시A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였고 5G와 프리미엄급 신모델이 선전하면서 지난해보다 출하량을 8% 늘렸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분석했습니다.애플은 아이폰14 시리즈 덕분에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7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중동·아프리카 점유율은 작년 2분기 4%에서 올해 6%로 올랐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삼성전자 美법인 '일하기 좋은 직장' 선정…'올해의 고용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4854?sid=101

'스티비 어워즈 2023' 소비자 제품 부문 금상  
  
  
  
삼성전자가 '스티비 어워즈'에서 올해의 고용주 부문 금상을 받았다. (삼성전자 제공)(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스티비 어워즈(The Stevie Awards) 2023'에서 '올해의 고용주(소비자 제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티비 어워즈는 '우수 고용주(Great Employers)'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시상식을 진행했다. 스티비 어워드는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즈니스상으로 글로벌 역량, 성과, 경영,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매년 약 70개국, 1만2000개 이상의 후보가 경합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상한 '올해의 고용주'는 스티비 어워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일하기 좋은 기업, HR 팀, 성과, 신제품,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공급업체를 뽑는다. 올해는 소비재뿐 아니라 △제조업 △보험 △미디어 △금융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에서 950개 이상의 후보가 경쟁했으며 지난 6~7월 100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상은 긍정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삼성을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미국 전역의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2분기 유럽·중동·아프리카 스마트폰 1위 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52674?sid=101

삼성전자가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왕좌를 지켰습니다.오늘(2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33%의 점유율을 기록해 애플(23%)과 샤오미(2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삼성전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31%)보다 2%p 늘어났지만, 애플은 2%p 감소했습니다.2분기 유럽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12% 감소한 여파로 삼성전자도 1년 전보다는 출하량이 8% 줄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오포는 유럽시장에서 각각 21%, 51% 줄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2분기 중동·아프리카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24%로 테크노(16%)와 샤오미(9%)를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저가형 갤럭시A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였고 5G와 프리미엄급 신모델이 선전하면서 지난해보다 출하량을 8% 늘렸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분석했습니다.애플은 아이폰14 시리즈 덕분에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7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중동·아프리카 점유율은 작년 2분기 4%에서 올해 6%로 올랐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15% 하향…"그래도 4분기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26694?sid=101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종목은 대장주 삼성전자다.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실적 시즌에는 오는 4분기 반도체 가격과 업황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배터리 쪽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모멘텀이 약화했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업종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연초만 하더라도 증권가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과 가격 반등을 예상하며 삼성전자가 3분기 7조8천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6월 말에는 전망치가 3조6천억원대로 낮아졌으며, 지난 21일 기준으로는 2조5천324억원으로 더 내려갔다.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8월 말 대비로는 14.6%나 줄었다.이달 들어 1조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하는 증권사도 여럿 나왔다. 키움증권(1조3천940억원), IBK투자증권(1조4천730억원), 유진투자증권(1조6천억원), KB증권(1조8천억원), 한화투자증권(1조9천500억원) 등이 컨센서스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증권가는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실적 개선이 기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본격적인 업황 개선 시점은 4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김지산 센터장은 "조심스럽지만 수출도 바닥을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IT 세트(완성품) 수요도 연말로 가면서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거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4분기부터 개선될 거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